



## 김원섭, 소리 없이 강하다



타율 3할1푼·35타점·실책 0·결승타 7번  
 꾸준한 타격·안정된 수비로 조용한 활약

KIA 김원섭의 '조용한 활약'이 눈부시다. 226타수 70안타(타율 0.310), 35타점, 22번의 멀티히트, 실책 0 그리고 7번의 결승타. 올 시즌 66경기에 출전한 외야수 김원섭의 성적이다.  
 타점(35점), 2루타(16개), 3루타(3개) 팀 내 1위, 타율은 김선빈(0.311)에 이어 팀내 2위이자 전체 타자 중 10위다.  
 팀 최다 결승타의 주인공도 김원섭이다. 프로야구 전설 이종범의 은퇴식이 열렸던 5월26일 LG전. 앞치락뒤치락 하는 승부로 결승타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이날 김원섭은 1회 선취타점에 이어 3-4로 승부가 뒤집힌 7회 2사 1·2루에서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로

5-4 재역전을 만들어냈다. 김원섭의 활약으로 그 주 KIA는 6연승을 달렸고, 김원섭은 6번의 승리에서 3차례 결승타를 때려냈다.  
 지난 7연승의 시작에도 김원섭이 있었다. 6월23일 SK와의 홈경기에서 2-2로 맞선 7회말 김원섭은 2사 만루 상황에서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 승리를 시작으로 KIA는 7월1일까지 연승가도를 달리며 본격적인 순위싸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김원섭은 화려한 한방이나 플레이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아니지만 타석에서의 꾸준함과 폭 넓고 안정된 수비로 '조용한

활약'을 하고 있다. 만성간염을 앓고 있는 김원섭의 올 시즌 목표는 '부상없이 꾸준하게 시즌을 보내는 것'이다.  
 일단 자신이 구상했던 대로 시즌이 흘러가고 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컨디션도 좋다.  
 김원섭은 "지난 스프링캠프에서 부상 없이 완벽하게 훈련을 했던 게 그 결과로 나오는 것 같다. 보양식을 따로 챙겨먹지는 않지만 요즘 오리 고기를 많이 먹고 있다. 또 우유가 단백질과 수분을 동시에 섭취하는데 좋다고 해서 우유를 많이 마시고 있다"고 체력 관리 비법에 대해 얘기를 했다.

자신의 성적 중 가장 흡족한 부분은 타점. 지난해 30타점에 그쳤던 김원섭은 현재 35타점으로 최희섭과 함께 팀에서 가장 많은 타점을 생산했다.  
 김원섭은 "아무래도 타점을 올릴 때 가장 기분이 좋다. 꾸준히 팀 승리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가장 욕심이 나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은 도루다. 팀의 기동력에 기여를 하고 싶지만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마음 놓고 뛰지는 못하고 있다. 올 시즌에는 7개의 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김원섭은 "지난해 무릎이 좋지 않아서 러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살도 찌고 전제적으로 몸이 무거워서 도루를 하나 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올 시즌 도루에 욕심이 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해서 쉽지는 않다. 몸 관리 잘해서 묵묵히 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QPR 한국 선수는 기성용?



광주 금호고 출신으로 올 시즌 '셀틱'을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으로 이끈 기성용.

9일 한국선수 영입 발표  
 광주 출신 프리미어리그  
 첫 탄생 여부에 관심집중

잉글랜드 1부리그 무대를 밟는 10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그가 탄생할 전망이다. 행선지는 지난 2011~2012시즌 프리미어리그 잔류에 성공한 퀸즈 파크 레인저스(QPR)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한국시각) QPR의 스폰서 '에어 아시아'측 관계자는 "QPR이 오는 9일 영국 런던에서 아시아 선수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를 갖는다. 구단 측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결과 영입을 확정 지은 선수는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여름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시작으로 이영표(전 토트넘), 설기현(울산·전 폴럼), 이동국(전북·전 미들즈브러), 김두현(경남·전 웨스트브롬위치), 조원희(광주·전 위건), 이청용(불턴), 지동원(선덜랜드), 박주영(아스널)에 이어 10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그가 탄생하게 된다.

말레이시아 항공사인 '에어 아시아'는 QPR의 구단주인 토니 페르난데스가 회장을 맡고 있다. QPR은 오는 14일부터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거치는 아시아 투어에 나서게 돼 이번 영입의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QPR이 영입을 확정 지은 한국 선수는 기성용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기성용은 지난 시즌 종료 이후부터 QPR의 강력한 러브콜을 받아왔다.  
 기성용은 당초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무대를 원했으나 출전 시간 보장 등을 고려해 잉글랜드행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 판 페르시 아스널 떠난다 박주영 출전기회 늘지 주목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30골로 득점왕에 오른 판 페르시는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전부터 아르센 벵거 감독과 구단주와 함께 거취 문제를 두고 대화를 해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의 '간판 골잡이' 로빈 판 페르시(29)가 아스널 유니폼을 벗는다.  
 판 페르시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아스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5일 밝혔다.

한편 판 페르시에 이적에 따라 지난 시즌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박주영(27)이 출전기회를 늘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 전국휠체어러كب동호인 최강전 오늘 전남대 체육관에서 개막

2012 전국휠체어러كب동호인 최강전이 6일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는 8일까지 3일간 펼쳐지며 전국 20개팀 시·도 3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

해 기량을 겨룬다. 휠체어 러كب은 여러 장애 중 가장 중증(척수·경추) 장애인이 참가하는 경기로 일반 러كب 경기를 휠체어를 타고 하는 것으로 변형한 종목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FC '오공축구'로 대구 공략

내일 K리그 20R 원정  
 공격수 5명 배치 총공세

광주 FC가 대구전 무패행진을 잇는다.  
 광주 FC가 7일 오후 7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대구 FC를 상대로 K리그 2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대구전 2승1무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는 대구를 상대로 후반기 희망

의 불씨를 살린다는 각오다. 부상과 경고누적으로 정예멤버를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는 이번 경기에 베스트 11을 총출동시킨다.  
 복이와 박기동, 김동섭이 공격의 선봉에 서고 김은선과 이승기

가 지원사격에 나선다. 다섯 명의 공격수가 나서는 '오공축구'다. 광주는 지난 17라운드 전남과의 경기에서 오공축구로 6골을 몰아넣으며 막강 화력을 과시했다.  
 수비라인도 안정세다. 광주는 지난 서울 원정에서 2-3

으로 패를 기록했지만 박수를 받을 만한 멋진 경기를 선보였다.  
 김동섭은 특유의 스피드로 경기내내 서울의 왼쪽 측면을 공략했고, 박기동은 탁월한 힘을 바탕으로 골문을 위협하는 등 시즌초 거침없는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다.

무패 중이지만 대구의 용병 삼총사가 만만치 않다. 대구는 최근 브라질 용병 삼총사가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복귀한 후 대구는 최근 5경기에서 3승1무1패, 3경기 무패(2승1무)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지널손과 레안드리뉴는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각각 1골씩을 기록했다.  
 광주가 상승세의 대구를 꺾고 2시즌 연속 무패 기록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단롭필로 라텍스 침대 150평**

세계최고 수면과학 단롭필로 Duniopillo  
 고객님의 매트리스는 아래와 같습니까?

머리 — 어깨 — 척추 — 엉덩이 — 허벅지 — 종아리 — 다리

5% — 15% — 60% — 15% — 5%

수면시 힘의 분포도

**원목가구(종합) 100평**

**직수입 이태리가구 200평 1~3층**